

레슬리 알렌 박사, 애도, 세션 5,

애도 2: 1-22

© 2024 레슬리 알렌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5부 애가 2:1-22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각 부분에 대한 빠른 분석을 제공하고 누가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장의 대부분의 경우, 1장의 주요 설교자, 즉 우리의 멘토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1장 끝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의 멘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관해 예루살렘과 유다. 그러다가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멘토가 시온에게 그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18절과 19절에서 멘토는 시온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절에서 시온이 기도합니다. 2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적 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미 1장 끝에서 접했던 여호와의 날 모티브이다. 22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니라 그래서 여기 에는 문학적 틀이 있고,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극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으로서 포로 이전 선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명히 장례 애도이다. 그것은 더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비명을 지르는 감정적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사고 방식은 과거 예루살렘의 정상성과 예루살렘이 겪었던 일련의 비정상 사이의 역전으로서 슬픔을 상실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그것은 전통적인 장례식 애도가 아닙니다. 순전히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개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례식 애도를 각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겪은 손실에 대한 묘사로서 슬픔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겪고 있는 심리적 과정인 슬픔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상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슬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비극의 의미, 야훼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신학적 요소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셋째, 애도 행위에 대한 반응이 5절 끝부분에 언급되어 있고 10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요소는 1절부터 1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는 6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로 인한 고난은 5절 끝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을 다시 한 번, 10절에서는 그 재앙이 초래한 고난을 다시 언급합니다. 관련된 궤적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형벌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실의 측면에서 슬픔과 암묵적인 죄책감입니다. 1절에서 주요 연사는 시온이 1장과 12절에서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던 주님의 날 모티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극에 대한 그녀의 예언적 설명을 이어받습니다. 포로 이전 예언의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묘사하는 데 사용된 한 가지 모티브는 여호와와 날, 즉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지은 백성에 대한 끔찍한 보복에 개입하실 때였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진노는 진노하신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멘토는 1절 끝, 즉 분노한 날에 분노와 그날의 연결을 다시 포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가 매우 특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또는 동의어와 함께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동의어. 우리는 2절에서 진노를 봅니다. 3절에서 우리는 맹렬한 분노를 봅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우리는 4절에서 불 같은 진노를 발견하고 6절에서는 맹렬한 분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이러한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에게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확실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바냐서에서 그것이 분노와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그날을 분노와 연관시킵니다.

예, 나는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바냐 1: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15절은 그 날이 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치료에서 우리는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첫 번째 섹션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분노,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하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하는데 세 개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 약속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분노에 맞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사랑이나 분노라는 양극화된 용어 쌍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양극화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행하지만 부정적이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지만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도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도발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성한 분노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반응입니다.

이는 개시 요인이 아니며 반응 요인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열왕기하 25장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묘사를 언급했는데, 그것이 대체로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24장과 25장입니다. 24절 끝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요소는 지나가면서 가져온 것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 서사시적인 역사에서 편집자들이 이전에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예루살렘과 유다가 여호와를 크게 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본보기니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멘토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애도 2에는 첫 번째 부분인 또 다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destroy, destroy입니다.

이 역시 분노와 매우 잘 어울리는 부정적인 용어이지만, 여기에는 분노의 작용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멸하셨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멸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두 번 발견하고 나중에 8절에서 파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파괴를 통한 분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문장에서 하나님은 멸망의 동사로 주어졌고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일부는 그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에게서 발견한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앙의 예언, 심판의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의 구성 요소 또는 심지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나 수도를 처벌해야

합니까? 주어진 이유가 있고 그 다음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섹션의 후반부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신성한 개입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나도 뭔가를 할 것이다. 나쁜 일을 하면 인간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난의 신탁이라는 공식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모스 2장 4절과 5절의 예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율례를 지켰으나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 행하던 동일한 거짓말에 미혹되었도다. 그게 이유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발표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다음에는 인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사르리라.

그리고 그 예언적 패턴의 그 요소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애가 2장의 초기 구절에서 선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변화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보고이므로 나 대신에 주님 자신이 제3자로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가는 다시 예언서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런 스타일의 말하는 방식을 재난의 예언적 신탁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적 계시를 더욱 지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개입, 하나님의 개인적 개입을 통한 재앙의 신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있어.

그리고 그것은 슬프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애가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애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에는 감상해야 할 문화적 맥락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멘토가 말하는 어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이 국가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신학적인 방식으로 회중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예루살렘 이 시온에 관해 말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의 대부분은 1절 외에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유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시부터 10시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해 말하고 싶어하므로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얼마나 모욕하셨는가. 해당 번역에 대해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해당 동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딸 시온.

이번에도 시온은 여성으로 의인화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날에 자기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화와 발등상은 직전에 언급된 딸 시온을 고려하여 여기서 시온에 대한 은유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중심지요 유다의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그의 발등상이었다는 점이다. 주로 방주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 하나님의 종교적 임재.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도시에도 적용된다. 하나님 자신이 그 도시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하고 예루살렘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모든 상황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집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포로 이전의 예언적 발언의 메아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정심이 없고 동정심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포로 이전 선지자들에게서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0장과 14절에는 NRSV에 무자비하다는 단어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동정심이나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장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키워드 중 또 다른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파멸됩니다.

안타깝게도 NRSV는 이제 번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무자비하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가차 없이 말씀하십니다. NIV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언적 예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보면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거처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딸 유다의 요새는 유다 변방의 방어벽이니라 그리고 그는 왕국과 그 통치자들에게 불명예를 안겨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이 다스렸던 그 왕족 국가는 이제 망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력을 진노하여 멸절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뿔이고 NIV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유지하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뿔은 은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적인 또 다른 들소와 싸우는 들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쓰러뜨린 뒤에는 뿔나팔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뿔을 높이는 것은 승리의 힘입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결국 이 개념에 도달했을 때 이 개념이 포착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7절에서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의 힘을 높이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는 들소처럼 당신의 원수들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유적인 뿔을 높이 드시는 일에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친밀하고 더 개인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4절에서 그분은 원수처럼 오른손을 잡고 활을 당기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여기 궁수입니다. 우리가 딸 시온의 장막에서 자랑하던 모든 자들과 우리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그가 죽임을 당하여 다 죽었느니라. 그분은 자신의 분노를 불처럼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처럼 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모든 궁전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시온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지만 이제 유다의 주요 주제는 5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모든 궁궐이 멸망되었습니다. 우리는 궁전을 왕족의 말인 버킹엄 궁전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이 스스로 지은 더 나은 저택, 큰 건축물, 잘 방어된 건축물을 유다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요새를 폐허로 만들고 딸 유다를 번성시켰습니다. 애도와 애도.

애도 행위에 대한 언급은 1부터 5까지의 첫 번째 작은 섹션인 애도에 대한 반응을 끝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6시부터 9시까지 시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부스를 정원처럼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부스와 다음 절반 줄의 장막은 모두 성전에 대한 고대의 언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자신의 부스를 정원처럼 허물어 놓았는데, 그건 별로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원 부스, 정원 안의 부스, 정원에서 볼 수 있는 허술한 구조물과 같은 일종의 속기 표현입니다. 그는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견고한 성전 구조가 그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온과 절기와 안식일에는 여호와께서 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종교적 예배가 실제로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맹렬한 분노로 왕과 제사장이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왕은 때때로 종교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부와 함께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7절에서 이러한 종교적 사고 방식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단을 멸시하시고 당신의 성소를 멸시하셨습니다.

그는 원수의 손, 즉 그 궁전의 성벽에 넘겨졌습니다. 이 큰 저택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축제일처럼 주님의 집에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성전 시간에는 성전이 시끄러운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회중이 할렐루야의 화답을 외치곤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끔찍한 소음, 적군의 요란한 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아이러니한 대조와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딸 시온의 성을 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절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이르면 8절을 다시 보면 이 결심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중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7절의 해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는 줄을 뺐었습니다.

그분은 멸망시키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선을 쪽 뺀 것은 철거되어야 하는 폐기된 재산을 표시하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노란색 테이프와 같은 표시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넘어서면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키워드 중 하나가 반복됩니다. 그는 성벽과 성벽을 불러 애곡하며 그들은 함께 괴로워합니다. 성벽, 외벽, 그리고 더 견고한 내벽.

그리고 그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벽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은 18개월 간의 포위 공격이 끝나면서 들이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의 문이 땅에 가라 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창살을 파괴하고 부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문을 가로질러 막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막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강제로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왕과 방백들은 열방 중에 있느니라. 또 다른 큰 손실은 그들이 다른 유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내가 없습니다. 여기 9절 후반부에서는 리더십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 왕의 신하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내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토라이지만,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주는 경향이 있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더 이상 주변에 없기 때문에 사제의 지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환상도 얻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예언적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상실되고 세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는 그러한 재난에 대한 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행동 으로 돌아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바닥에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읽은 욥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욥의 위로자들과 매우 흡사한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애도 활동입니다. 장로들도 관련되어 있으며 예루살렘 연령과 성별의 어린 소녀들도 공동의 슬픔으로 연합됩니다.

예루살렘의 소녀들이 땅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땅과의 이러한 연관성은 고대 세계에서 애도의 일부였습니다. 11절에 멘토의 답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말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물의 측면에서 눈물입니다. 내 눈은 울음으로 지쳤습니다.

배가 출렁거린다. 이런 심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내 담즙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토한다. 내 백성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멘토의 공감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멸망당한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과 같은 시민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 특히 도시 거리에서 기절하는 유아와 아기들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포위 상황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다. 신체는 발달했지만, 어린이, 유아,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기아와 궁핍을 감당할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유아들이 고통을 겪고 그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끔찍한 일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애도의 상황은 포위 공격 이후, 예루살렘 함락 이후이지만 그 포위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과거 시제여야 합니다.

그들이 어머니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어머니의 가슴에 쏟아져 나옴에 따라 그들은 도시 거리의 부상자들처럼 기절할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빵과 물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지만 물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보관 창고에 있던 것뿐이었습니다.

글쎄, 무엇이 남았나요? 글쎄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곡식, 곡식, 빵은 조금 지나면 썩는데, 곡식,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 품목은 여전히 이 배고픈 환경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상자처럼 기절합니다. 부상자들은 전쟁의 사상자이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 겪는 부수적인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을 팔로 꼭 안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멘토가 시온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온과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시온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여인에게 몸을 돌려 그 전례에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딸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비하겠는가? 오 처녀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바다가 네 파멸이 광대하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압도당했는지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1장 12절에서 그녀가 자신의 슬픔의 독특함을 말한 시온 자신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닥친 슬픔 같은 슬픔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함을 포착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이 아는 어떤 것보다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쁘고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가 너의 파멸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재난의 압도적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다와 같습니다. 마치 지중해와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큼니다. 그러나 바다가 종종 은유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사고에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시작 부분인 요한계시록에서 포착됩니다.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사의 혼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할 수도, 도움을 줄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혼란스럽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은 거짓되고 기만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네 재산을 회복시키려고 네 죄악을 폭로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거짓되고 속이는 예언을 보았느니라. 포로 이전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좋아했던 또 다른 유형의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아 예, 여러분의 선지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멸망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평화와 안도감을 말하였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샬롬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믿을 수 없나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회개에 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그들의 예언적 지평에 들어오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듣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히 이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의 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의 기초가 되는 자들이며, 죄의

원인을 증가시키며,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소위 예언적 계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들처럼 너희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파멸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궤적에 대한 슬픔 뒤에 오는 궤적에 대한 죄책감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인, 즉 굴욕의 이차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손뼉을 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문 앞에서 씩씩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온이 말한 것, 즉 112년에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멘토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그들의 조롱과 씩씩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제스처는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맥에서는 예루살렘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재난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 성읍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성, 온 천하의 기쁨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성읍이냐? 이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입니다. 이것이 시온신학이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시편 48편에 나오는 온 땅의 기쁨인 시온의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시온산을 온 천하의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샬롬 선지자들이 언급한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의 완벽함은 인접한 시편에 나오는데, 시온의 노래가 아니라 시온을 모티브로 한 노래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시온은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아름다움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시온 신학, 거짓 선지자들이 받아들인 기대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다. 그리고 종종 슬픔에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기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롱의 말은 16절에서 계속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거기 시계가 있어요.

16절에는 이러한 조롱과 모욕이 계속됩니다. 네 원수들은 모두 너를 향해 입을 벌린다. 그들은 씹씹거리고, 이를 갈고, 울고, 우리는 그녀를 삼켰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갈망하는 날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파괴적인 적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복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복자로서 이 굴욕과 조롱, 이차적인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하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대한 그들의 언급은 우리가 갈망하는 날입니다. 아, 멘토님과 시온님이 주님의 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는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라고 정복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날, 우리가 계획한 멋진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무 완수. 오늘은 우리가 갈망하는 날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군대,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17절은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작정한 대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멘토가 본 진실입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이 위협은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그곳에서
 언급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오래 전에 정한 대로, 8세기 중반부터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모두의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예언적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과거의 예언적 계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는 동정심 없이, 자비 없이 철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선지자들의 핵심 문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원수가 당신을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수는 너희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 뒤에는
 재난의 원인이신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적들의 힘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적들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인간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멸망의 동사들의 주어였을 때 1절부터
 8절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은 8절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장의 앞부분과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시의 앞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모두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과 19절에서는 여전히 멘토가 시온에게 말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온에게 애통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20~22장에는 시온 자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18절부터 딸 시온의 성벽이여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여기에는 시온 성벽의 의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벽은 애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벽과 성벽이 의인화되는 8절을 선택합니다. 그는 성벽과 벽을 불러 애도합니다. 그들은 함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는 측면에서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애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선택하고 우리는 장례식 애도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벽으로 이동해야 하고, 여러분은 애도 기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딸 시온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너 자신에게 휴식을 주지 말고, 너의 눈도 쉬지 말고, 너 자신도 쉬지 말고, 너의 눈도 쉬지 마라.

그러면 기도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절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슬픔을 야기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슬픔의 표현으로서 계속해서 억제되지 않은 울음소리를 통해 감정적으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는 19장에서 기도의 측면으로 옮깁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외치십시오.

밤 시간은 다양한 시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고 잠에 들까 생각하는 밤의 첫 번째 시계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외쳐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위해 그분께 손을 들어 올려 보십시오. 그러다가 길 모퉁이에서 배고픔으로 쓰러진 사람을 돌아보고, 포위 당시 굶주렸던 그 상황을 돌아보며, 멘토 자신의 괴로움을 짚어보고, 슬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손이었고, 기도의 말씀을 강화하는 몸짓이었습니다. 1장 12절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런 호소가 있었는데, 1장 17절에서 멘토는 시온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수평적인 호소가 이제는 수직적인 호소와 손을 드는 것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신께. 그리고 그는 포위 기간 동안 주변의 어른들보다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굶어 죽은 이 아이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시온이 기도하며 회중의 롤 모델이 됩니다. 이것이 회중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들도 역시 슬퍼할 지경에 이르러야 하지만 또한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20~22에는 충격적인 고통의 다섯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20절에서 여자들이 자기의 소생,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어야 합니까?라는 개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장과 10절에서 선택되어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이 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아이들이 죽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음식이 없어 생존을 위해 그 시체를 음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격적인 고통의 한 예입니다. 그러면 20절 끝부분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와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 이중 신성 모독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초에는 노소를 불문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학살이 거리 곳곳에 널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는 젊은 남녀를 살해하여 남은 자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젊은 여자들, 나의 젊은이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에 한 사람도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들은 나의 원수가 멸망당하는도다 그리고 기근으로 죽지 않은 아이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도시가 함락된 후 적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비극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 문제의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가져오고 그 모든 충격적인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하였나이까?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며, 모든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도 이런 식으로 고통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시온이 표현하고 있는 긴장감이 있고, 회중이 차례로 느끼고 헤쳐나가야 할 긴장감입니다. 그녀의 비극에 대한 두 가지 대조되는 인식 사이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직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녀는 일종의 인지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멸망에 대한 책임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면에서 포로 이전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언적 신탁에서 읽은 신의 부정적인 개입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재앙의 신탁처럼 신성한 부정적인 개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은 다시 포로 이전 예언의 편에 서서 주의 날과 연결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죽이셨나이다 그리고 22년에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로 이전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가차없이 반복되는 포로 이전의 메모입니다. 그리고 20b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신명기를 되돌아보면 여성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자궁의 열매를 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신명기 28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토라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투쟁, 정신과 마음 사이의 투쟁을 야기합니다.

시온은 기대를 뛰어넘는 위기의 압도적인 공포에 대한 반응을 동시에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끔찍하고 새로운 사건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멘토로부터 배운 것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 앞 부분에서 그 자신의 두 가지 반응을 요약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장과 17장에는 합리적 인식, 인지적 인식, 신성한 부정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에 상응하여 이것을 행하셨고 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의 진노의 날은 곧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스바냐가 말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공황이 없든지 공황이 없든지 그러하니라. 시온은 20절에서 신명기 28장에 대한 토라의 또 다른 언급을 추가함으로써 더 나아갔고, 1장에서 멘토와 시온 자신이 추가한 것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멘토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더 나아가서 바다가 당신의 파멸만큼 광대합니다.

그래서 멘토 자신도 이러한 긴장과 도전, 일어난 일을 합리화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 사이의 투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온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온이 해야 할 일은 이 투쟁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의 첫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가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5부 애가 2:1-22입니다.